

1) 평신도를 위한 신학 / 교리

왜 삼위일체를 믿는가? 성경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삼위일체론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이 진리를 부인하면 해석할 수 없게 된다. 언제나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1:26)고 복수형으로 말씀하셨다. 그 외에 창11:7, 창18:2,13,22, 수5:13, 단3:24-25(풀물 속의 네 사람), 사48:16 "주 여호와께서(성부) 나와(성자) 그 신을(성령) 보내셨느니라"등을 참고하여 보면 구약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함께 역사하셨다. 눅1:35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성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성자)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구속사업이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끝을 맺는다. 마3:16-17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실 때 비둘기 형체로 나타났던 것은 단순한 영적 감화력만이 아니고 실제 인격적 존재이심을 보여준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성부)와 아들(성자)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22:1,17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하나님과 및 어린양(성자)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데..."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신다. 고후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늘 듣는 축도도 삼위일체를 통하여 복을 비는 것이다.

2) 교회를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김 승 환	1청년부, 예배	010-2748-5218	장 로	김형복 류재천 김형필 윤영호
	한 성 문	유초등부, 교육	010-5235-8868	은퇴장로	김정웅 김주량 남상목
교 육 목 사	구 종 한	중고등부, 영어예배	010-5649-0519	명예장로	공순영 김길성 김석현 김정남 김정현 나희태 이복우 조기신 최병철 황상호
전임강도사	오 세 현	2청년부, 재직	010-2337-8758	지 휘	최 영 방성호
심방전도사	김 정 희	교구, 중보기도	010-2394-4476	피 아 노	김경원 강성희 정현주 안지현 최 은
	김루디아	교구, 새가족부	010-4534-7250	오 르 간	강성희
교육전도사	김 원 와	유치부, 찬양	010-9251-6255		
	고 애 란	영아부	010-9267-6413		
행정사무원	김 용 희	행정, 사무	010-7582-1009		
관 리	김 형 복	관리, 자량은행	010-3933-0461		

3) 예배시간 안내

주일오전	1부	오전 8시	사 랑 홀 (3층)
	2부	오전 10시	비 전 홀 (2층)
	3부	낮 12시	비 전 홀 (2층)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비 전 홀 (2층)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사 랑 홀 (3층)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30분	사 랑 홀 (3층)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사 랑 홀 (3층)
영 아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영아부실(2층)
유 치 부		주일 오전 10시, 12시	유치부실(1층)
유 초 등 부		주일 오전 10시	사 랑 홀 (3층)
중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홀 (3층)
고 등 부		주일 낮 12시	사 랑 홀 (3층)
청 년 1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홀 (3층)
청 년 2 부		주일 오후 2시30분	사 랑 홀 (3층)

4) 교회 오시는 길



제44권 47호 2015년 11월 22일

www.jesusvl.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김 동 진 Rev. Kim Dong-Jin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동남로4번길 12
TEL. 031)714-1004, 9191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주일오전예배

WORSHIP

사회 찬양	1부 김승환 목사	2부 김승환 목사 2부 히 엘	3부 한성문 목사 3부 아이노스
경배와찬양	다 함	다 함	다 함
송 영	"완전하신 나의 주"	다 함	다 함
※ 교 독 문	59. 시편 119편	다 함	다 함
※ 사 도 신 경		다 함	다 함
■ 찬 송	31장	다 함	다 함
■ 기 도 인 도		1부 김형복 장로	2부 윤영호 장로
		3부 김형필 장로	
교 제 찬 양	"주의 말씀 앞에 선"	다 함	다 함
■ 교 회 소 식		사 회 자	다 함
■ 헌 금	308장	다 함	다 함
■ 성 경 봉 독	신 6:4-9(p271)	담 당 자	호 산 나
찬 양	"승전가"	다 함	다 함
	"주의 빛 안에 살면"	다 함	다 함
■ 설 교	"쉐마:신앙의 후계자를 키워라"	김동진 목사	다 함
※ 찬양과기도		다 함	다 함
※ 축 도		김동진 목사	다 함
※ 파 송 찬 양	"주의 나라 주의 구원"	다 함	다 함

※는 일어서 주십시오. / ■ 1부 예배순서

주일오후예배

경배와찬양	다 함
기 도	다 함
찬 송	다 함
설 교	다 함
파 송 찬 양	다 함

수요예배

시 간	오후 7시30분
장 소	사랑홀(3층)
담 당	한성문 목사

금요기도회

시 간	오후 8시30분
장 소	사랑홀(3층)
담 당	김동진 목사

새벽기도회

시 간	오전 5시
장 소	사랑홀(3층)
담 당	교역자

교회 소식

새가족 소개

새로 등록하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로 인도자와 함께 오셔서 담임목사님을 만나주세요.

NO.	성명	주소	인도자	NO.	성명	주소	인도자
48	이준혁	정자동	스스로	51	김영미	정자동	스스로
49	이은실	정자동	스스로	52			
50	이수현	정자동	스스로	53			

1. 예배시간 변경 투표결과: 「현행대로」 예배시간 불변

2. 교육위원회 세미나: “미래세대 없이는 우리교회도 없다.”

- 오후예배후, 15:40~17:40(약2시간), 3층 중예배실(사랑홀)
- 꿈과사랑의교회 성도 누구나(교사, 구역장, 학부모, 청년 등) / 세미나후 저녁식사 제공

3. 재정부주관 교육/제직부서장 회의

- 3부 예배 후(13:40~14:25) / 세미나실(3층, 꿈사랑홀)
- 2016년 사업계획수립 예산안 설명

4. 제직위원회 부장단 모임: 오후예배 후

5. 2016년(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모집

- 신청서 본당 로비에 비치

6. 2016년 제직부서 연간계획서 제출: 다음 주일(29일)까지 제출(담당: 김형필장로)

7. 홈페이지 부서별 수정사항: 다음 주일(29일)까지 제출(담당: 윤영호장로)

8. 결혼광고시 혼주사진 제출: 광고 3주전까지 발송실 제출(담당: 강두식팀장)

· 중식/헌화

- 중식: 김선득, 이금란집사(결혼기념감사)

헌금 위원		
1부	2부	3부
신일숙	이화용 민지은 유순중 박경숙 전란숙 정정순 김용례 이윤주 유봉순	손명철 홍기전 송용이 윤중오 최영희 조애자 김영신 조병순 정해순

교육 및 모임

내 용	시 간	장 소
1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빌립홀(5층)
2청년부 모임	젊은이예배(2시30분) 후	사랑홀(3층)
안수집사 제자훈련	오후예배 후	안수집사회실(6층)
구역장 공과교육	오후예배 후	꿈사랑홀(3층)
안수집사 기도모임	주일오전 8시30분	안수집사회실(6층)
화요중보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수요중보기도모임	수요일예배 후	사랑홀(3층)
목요중보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1시	한나실(B1층)

지난 주 말씀

시 68:19-27 올해 나의 감사제목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가게 되면 배낭에 짐을 잔뜩 싸서 지고 가게 된다. 그 때 짐을 안 가져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짐은 내게 꼭 필요한 식량과 옷가지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짐을 지고 가게 된다. 그런데 그 짐이 무거워서 짐을 지기 싫거나 짐지는 것이 힘겨운 경우가 많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기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저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자.

1.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고 하셨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었다. 그는 사울 왕에게 미움을 샀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아들까지 반역을 일으켜 죽을뻔하기도 하였다. 권력도 짐이었다. 다윗은 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매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가 수행한 전쟁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 그 외에 그는 인생의 근본적인 짐, 죄의 짐을 지고 갔다. 죄악 된 인간 본성으로 인하여 죄짐으로 고통 받았다(시51편).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저주신다. (19절)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엘 샤다이 : El-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샤다이(Shaddai)는 풍부한 가슴, 엄마의 흘러넘치는 젖가슴을 의미하는 Shad에서 나온 말이다. 엄마의 젖은 아기를 향하여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한량없이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은 풍부한 가슴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남의 짐을 조금만 저도 얼마나 공치사를 하고 또 금방 지치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짐을 대신 저 주시는 하나님이다.

3.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올 한해 우리가 드리는 감사 제목은 내 짐을 대신 저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다.

- ① 짐을 대신 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 ② 내 짐을 대신 저 주시는 하나님께 짐을 완전히 맡겨라
- ③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3-4절, 33-35절)

우리 짐을 날마다 대신 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항기로운 예물

십 일 조 이희재 김정용 함윤주 이정희 이창우 김경숙 최호용 오세현 최복순 김혜중 김창규 최금자 신일숙 노옥자 최경석 김진숙 유종수 김철호 박순희 김성근 주세영 김정희 김일영 민지은 권부월 권순만 정병운 김영신 손명철 남애희 공순영 송해숙 김상문 손순자 한지연 진병환 윤정운 이수임 윤화동 김윤기 이월자 최정순 황춘하 김영빈 심정자 김우중 한삼순 문연희 김맹순 오경애 김정현 나완용 김경림 김하영 김하선 김하울 김원와 임충선 박순애 김루디아 박경숙A 무명6

감사헌금 류재진 신 철 안영선 김성근 주세영 김정희 김형석 박미영 김연희 고애란 홍옥순 이화용 이은정 원종훈 이상환 심근식 최기철 박정숙 한순래 윤중오 임진목 정숙영 김윤기 이은숙 류일청 김수정 류지우 조 윤한지연 정춘자 김하울 김하영 김하선 이신성 나완용 김경림 나현주 나승현 최명순B 전에스터 무명8

철야헌금 김동진 김정현 임태현 김신영 윤영호 한인숙 최기철 박정숙 김정남 강정석 정이용 안순옥 한사랑 정미선 무명1

선교헌금 최 환 김정희 김윤기

건축헌금 나완용 김경림 나승현 나현주

구제헌금 김은조 김에스터 김정희

※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주보 간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주일헌금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헌금: 신한은행 100-028-714510 (예금주: 꿈과사랑의교회)